

신라 중고기 초의 僧政과 寺主

The Buddhist Policy and Saju early in the medieval period of Silla

저자 (Authors)	박남수 Park, Nam-soo
출처 (Source)	신라문화 42 , 2013.8, 27-52 (26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2 , 2013.8, 27-52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69277
APA Style	박남수 (2013). 신라 중고기 초의 僧政과 寺主. 신라문화, 42, 27-5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4 11: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중고기 초의 僧政과 寺主

박 남 수*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II. 寺主의 설치와 寺典 |
| II. 중고기 초의 僧政과 興輪寺 | IV. 맺 음 말 |

[국문초록] 신라 승정기구의 성립 과정을 법흥왕·진흥왕대의 불교 정책 및 왕권과 관련하여 살피고, 초기 승정과 관련된 寺主와 寺典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에 법흥왕과 법흥왕비가 불교정책을 펴나간 공간으로서 흥륜사, 양무제가 처음으로 捨身을 행한 법흥왕 14년(527)에 착공하여 법흥왕 21년(534)에 大王寺로서 창건되었는데, 진흥왕 5년(544)에 이를 중창함으로써 大王興輪寺의 사색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공고 내 유구에서 출토된 명문와를 검토함으로써 '경주공고가 흥륜사지라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주공고 유구는 신라 중대 大檀院이라는 驛院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법흥왕과 법흥왕비의 불교 정책이 양무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점에 주목하여, 법흥왕과 진흥왕의 출가설은 捨身의례로 인한 것임을 추정하였다. 또한 법흥왕이 대왕사(흥륜사)에 주석하였다는 것은, 그가 흥륜사의 寺主를 겸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흥왕의 정교일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중앙관사 大道署의 별칭 寺典은 내성 산하 관사로서도 등장하는 바, 그 변화과정을 집사성의 전신인 租主와 내성관사인 租典과의 관계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로써 승정에 있어서 신라는 국왕의 고유 권한인 승려의 출가 및 승적의 관리, 사찰의 창건과 왕실 사찰의 관리 등을 국왕 휘하의 관제상에 두면서, 법회의 개최와 승려들의 계율 업무, 수계 등의 사항을 승단에 위임하여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영문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Buddhist policy organization in relation with the sovereignty and Buddhist policies in the reign of King Bupheung and King Jinheung in Silla and the early relations between Saju and Sajeon related to Buddhist polic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can be inferred that Heungryunsa Temple, as a key place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where King Bupheung and his Queen carried out Buddhist policies, started to build in 527(King Bupheung 14), when the Emperor Wu of Liang firstly did Atmabhava-parityaga(捨身), and completed in 534 (King Bupheung 21)to be named Daewangsa Temple at first. After rebuilt in 544(King Jingheung 5), it was bestowed with the name, DaewangHeungryunsa by the King. In addition, I raised the doubt about what remains in Gyeongju technical high school belongs to the Heungryunsa site and clarified the fact that the site was originally the station office named Daenowon. As taking notice of the similarity of Buddhist policies between King and Queen Bupheung and the Emperor Wu of Liang, it is supposed that the opinion that King Bupheung and King Jinheung became Buddhist priests was related with the ritual of Atmabhava-parityaga(捨身). Additionally, it can be understood that King Bupheung's staying at Heungryunsa temple means that he held the position of Saju of the temple at the same time, which reflected an aspect of the theocracy at that time.

Apart from that, I weighed the change process of Sajeon, another name of Daedoseo, against the relation with Joju, former Jipsaseong, and the Jojeon, the Royal Affairs Bureau(內省). Through this examination, it was revealed that King's own discretion including becoming a bonze, controlling the priesthood, establishing temples, and managing royal-patronized temples was controlled under royal bureau system and, concurrently, other things such as holding a Buddhist ceremonies, keeping a close watch of observation of rules and giving Buddhist commandments were delegated to the Sangha.

[주제어] 僧政(Buddhist policy), 法興王(King Bupheung), 捨身(Atmabhava-parityaga), 寺主(Saju), 寺典(Sajeon), 興輪寺(Heungryunsa Temple), 大檀院(Daenowon), 大道署(Daedoseo), 內省(the Royal Affairs Bureau)

I. 머리말

신라의 불교정책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 승관제와 승정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승관제와 승정은 왕권과 불교의 관계, 특히 승려들에 대한 예우 내지 불교계의 통제를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신라 승관제에 대한 연구는 처음에 그 유래와 성격에 대해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 승관제는 대체로 北齊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진흥왕 12년 고구려승 惠亮을 國統으로 삼으면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榮典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나 慈藏 무렵에 이르러

통제적인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한다.¹⁾ 이후 법흥왕·진흥왕대에 남조와 교류하고 道人の 용례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당시에 베풀어진 捨身 의례 등으로 미루어 남조 불교와의 관련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다.²⁾ 그런데 신라 승정기구는 대체로 원성왕대에 체제를 갖추었다가, 하대의 지방분권화 경향과 불교계의 성장에 따라 중앙승관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점차 각 사원의 독자적인 三綱典이 정비된 것으로 이해한다.³⁾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승정기구를 승관제와 동일시함으로써, 승관제 자체를 불교통제기구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각급의 중앙관사와 내성 관사, 그리고 각 관사의 관직이 엄밀히 구분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정기구와 승관도 관사와 관직으로 엄격히 구분되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승정기구와 승관직이 일반 관사나 관직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정기구 또한 일반 관사와 마찬가지로의 생성·발전과정을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법흥왕대의 불교 정책이 진흥왕대에 승계되었다면, 승정의 단초는 이미 대왕사(흥륜사)를 중심으로 한 법흥왕의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승정의 성립 과정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다면, 그 동안 신라 승관과 승정이 착종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신라 승정기구의 성립 과정을 법흥왕·진흥왕대의 불교 정책 및 왕권과 관련하여 살피고, 초기 승정과 관련된 寺主와 寺典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후 시행한 불교정책, 그리고 진흥왕 즉위 초 섭정직의 법흥왕비⁴⁾가 추진한 불교정책과 승정이 신라 승정의 대강을 이루며 변화하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법흥왕의 사신의례나 법흥왕비의 출가가 초기의 승정 및 왕권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법흥왕과 법흥왕비가 불교정책을 펴나간 공간으로서 흥륜사의 의미와 함께 경주공고 내 출토 명문와를 바탕으로 한 경주공고=흥륜사지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진흥왕 12

1) 中井眞孝, 1971, 「新羅における佛教統制機關について -特にその初期に關して-, 『朝鮮學報』 59, pp. 15~17.

2) 辛鍾遠, 1987, 「道人」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教와 韓日關係, 『韓國史研究』 59, p. 17.

3) 이수훈, 1990, 「新羅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釜山史學』 14, p. 2·37. 채상식, 1993, 「신라 승관제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 p. 50. 박남수, 1994, 「통일신라 사원성전과 불사조영체제」, 『동국사학』 28 ; 1996,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p. 196.

4) 박남수, 2008, 「蔚州 川前里書石銘에 나타난 眞興王의 王位繼承과 立宗葛文王」, 『한국사연구』 141, pp. 26~30.

년 진흥왕이 친정에 임하면서 寺主를 설치한 의미와 그 직임, 그리고 寺典이 대도서의 별칭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을 신라 중앙관사 租主-租典의 변화 과정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II. 중고기 초의 僧政과 興輪寺

신라는 법흥왕 18년(528)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고, 그 이듬해에 살생을 금하는 영을 내리는 한편으로 일반인들의 출가를 허용하고 사찰을 창건하였다. 그후 동왕 23년(536) 年號를 제정하여 建元 元年이라 하였다. 이러한 데에 대하여는 이미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불교가 사상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⁵⁾

법흥왕은 즉위 7년(520)에 律令을 반포하고, 그 이듬해에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신라가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유일한 기록인데, 이는 『梁書』 新羅傳과 양무제 본기 보통 2년 11월조에서도 확인된다. 사실 元帝가 제1회 荊州刺史 재임 중(526~539)에 편찬한 梁 職貢圖의 行文에서는, 520~530년대에 양나라가 新羅(斯羅)를 백제의 주변 여러 小國과 함께 백제에 종속된 작은 나라로 인식하였다⁶⁾. 이는 『양서』 신라전에서 살필 수 있듯이 신라가 백제를 통하여 梁과 통교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梁書』에 나타난 신라의 사정도 백제를 통하여 전해진 때문일 것이다.⁷⁾

그런데 興輪寺와 大通寺를 세웠다는 정미년(527, 법흥왕 14년, 성왕 5년)은 양무제가 처음으로 捨身을 행하고 개원한 때와 일치한다. 일연이, 대통사를 창건한 웅천주를 당시에 신라에 속하였다 하고 대통 원년을 중대통 원년이라 본 것은 분명한 착오이지만, 최근 경주공고 유구에서 발견된 와편이 백제의 그것과 동일방식이고 백제계 조와술의 경주 도입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는 연구⁸⁾가 있어 주목된다. 이는 기왕에 중고기 금석문에 보이는 ‘道人’이나 법흥왕의 捨身 행위 등이 남조

5) 이기백, 1986, 「고대 한국에서의 왕권과 불교」,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pp. 118~119.

6) 李弘植, 1965, 「梁職貢圖論考」, 『高麗大 60周年 紀念論文集 -人文科學篇-』;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pp. 396~398.

7) 李弘植, 위의 논문; 위의 책, pp. 408~425.

8) 이병호, 2013.3,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傳 弘農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9, pp. 31~41·45~48.

특히 양나라의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는 견해⁹⁾를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흥륜사의 창건과 당시의 불교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삼국유사』 기록을 살필 수 있다.

A. ① 제23대 法興王 … 法興은 시호인데, 시호는 이로부터 시작하였다. 甲午년에 즉위하여, 26년간 다스렸다. 능은 哀公寺의 북쪽에 있다. ② 왕비는 巳丑 [刀]夫人인데, 출가하여 이름을 法流라 하고, 永興寺에 주석하였다.[住永興寺] 律令을 시행하고, 十齋[行]일에 살생을 금하는 것을 시행하였으며, 度人⁹⁾으로 僧尼로 삼았다.[始行律令 始行十齋(行)日禁殺 度人爲僧尼](『三國遺事』 王曆, 제23 法興王)

B ① 법흥왕이 이미 폐지된 [불교를] 일으켜 절을 세우고, 절이 낙성됨에 면류관을 벗고 가사를 입었으며[謝冕旒 披方袍], 궁중의 친척들을 내놓아 절의 중으로 삼았다. […] 그 절에 주석하여 몸소 불교의 흥포를 맡았다.[主住其寺 躬任弘化] ② 진흥왕이 [그의] 덕행을 이은 성군이였기에 왕위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처하여 위엄으로 백관을 통솔하니 호령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大王興輪寺로 사액하였다. ③ 前王의 성은 金씨인데, 출가하여 法雲이라 하였고, 자는 法空이다.[僧傳과 여러 설에서는 또한 왕비도 출가하여 이름을 法雲이라고 하였고, 또 진흥왕도 法雲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흥왕비의 이름을 法雲이라고 하였으니, 자못 의심스러운 것과 혼동된 것이 많다] … ④ 처음 역사를 일으켰던 을묘년(535)에 왕비도 또한 永興寺를 세우고 史氏의 유풍을 사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妙法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永興寺에 주석하다가 몇 해만에 세상을 떠났다. ⑤ 國史에는 ‘建福 31년(614)에 영흥사의 소상이 저절로 무너지더니 얼마 후 진흥왕비인 비구니가 죽었다’고 하였다. ⑥ 살펴보면,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이고, [그의] 비는 思刀夫人 朴氏로서 牟梁里 英失角干의 딸이다. 또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지만 영흥사의 창건주는 아니다. 그런즉 아마도 眞자를 마땅히 法자로 써야 할 것 같다. [이는] 법흥왕비 巴刁夫人이 비구니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가] 곧 절을 짓고 소상을 세운 주인[創寺立像之主]인 까닭이다. 법흥과 진흥 두 왕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역사에 쓰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이다.(『三國遺事』 권 3, 興法 3, 原宗興法 獸鬪滅身)

위의 기사 B①에서 법흥왕은 사찰을 세우고 그 곳에 주석하면서 몸소 불교의 흥포를 맡았다[主住其寺 躬任弘化]고 하였다. 법흥왕이 세웠다는 사찰에 대하여,

9) 신종원, 앞의 논문, pp. 4~6 · 21~23 ;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pp. 188~189.

일연은 『國史』와 鄉傳에 근거하여, ‘법흥왕 14년 丁未(527)에 터를 잡고 21년 乙卯(535)에 天鏡林을 크게 벌채하여 처음으로 공사를 일으킴으로써 진흥왕 5년 甲子(544)에 興輪寺를 낙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진흥왕 5년의 興輪寺 낙성에 대하여, B②에서는 진흥왕이 大王興輪寺로 사액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흥륜사는 법흥왕 21년 이전에 창건된 사찰로서, 법흥왕 21년 천경림에 불사를 건축하였다는 것은 중수 사실로, 그리고 진흥왕대에 대왕흥륜사라는 사액이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⁰⁾ 다만 법흥왕이 사찰을 창건하여 주석하였다는 것이나, 진흥왕 5년 대왕흥륜사를 사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법흥왕대에 이미 대왕흥륜사의 전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울주 천전리 서석」 甲寅銘 ‘甲寅大王寺中」大王寺 安藏 詐作’에서 일컬은 大王寺가 아닐까 생각한다.¹¹⁾ ‘甲寅’에 대해서는 법흥왕 21년(534) 또는 진평왕 25년(603)으로 추정하는데,¹²⁾ 서석에 보이는 安藏이 진흥왕 11년(550) 대서성에 임명된 安藏法師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흥왕 21년(534) ‘甲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겨진다. 따라서 양무제가 처음으로 捨身을 행한 정미년(527, 법흥왕 14년, 성왕 5년)에 착공하여 법흥왕 21년(534)에는 大王寺가 이미 존재하였고, 진흥왕 5년(544)에 이를 중창함으로써 大王興輪寺의 사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興輪寺址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는 天鏡林을 벌채하여 불사를 일으켰다 하고¹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주부 남쪽 2리 지점에 있다¹⁴⁾고 하였다. 이에 흥륜사지를 오늘날 경주 사정동 봉황대에서 五陵에 이르는 중간 동편 지점을 傳興輪寺址로 여기고 있다.¹⁵⁾ 한편으로 傳興輪寺址에서 영묘사 명문와가 출토됨으로써 이를 영묘사로 일컫고, 경주공업고등학교 내 유구를 흥륜사지로 지칭하기도 한다.¹⁶⁾ 특히 와편의 명문 가운데 ‘王興’은 ‘王興’으로 추정되어 부여의 傳王興寺址 출토 銘文瓦 ‘王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王興’으로 석독하고 있다. 나

10) 魏英, 2001, 「신라 중고기 국가불교의 전개」, 『문화사학』 15, p. 132.

11) 남동신, 2000, 「신라의 승정기구와 승정제도」, 『한국고대사논총』 9, pp. 150~151.

12) 이문기, 「천전리서석」,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pp. 154·168.

13) 『三國遺事』 권 3, 興法 3, 阿道基羅·原宗興法 厭嚚滅身.

1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1, 慶尙道 慶州府, 古蹟 興輪寺.

15) 韓國佛敎研究院, 1974, 『新羅의 廢寺』 I, 一志社, p. 52. 文化財研究所, 1977, 『文化遺蹟總覽』 中, p. 57. 김복순, 2002, 「興輪寺와 七處伽藍」, 『신라문화』 20, pp. 47~48.

16) 이근직, 2002, 「신라 흥륜사 위치 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pp. 91~93. 박홍국, 2002, 「瓦塼資料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사지의 위치 비정」, 『신라문화』 20, pp. 198·228~229.

아가 이를 『삼국유사』에 보이는 ‘大王興輪寺’의 ‘王興’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겨 동 유구를 興輪寺址로 추정하기도 한다.¹⁷⁾



[1] 傳王興寺址 출토 ‘王興’ [2] 경주공고내 유구 출토 ‘王’ 銘文瓦와
銘文瓦 ‘寺’ 銘文瓦

물론 경주공고 내 유구의 명문과 ‘王興’의 ‘王’은 ‘王’자의 아래 부분 획일 가능성이 높으며, 부여의 전왕흥사지에서 발견된 명문과 ‘王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興’을 ‘興’으로 석독한 것은 1934년 부여군 규암리 신구리에서 盧道陽이 ‘王興’이라는 명문화를 수습하여 이를 ‘王興’으로 석독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후 2001년에 다시 동일한 명문화가 출토됨으로써 傳王興寺址를 『삼국사기』 백제 본기 法王 2년(600)에 창건하여 무왕 35년(634)에 완공하였다는 王興寺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¹⁸⁾

그런데 ‘興’은, 청나라 때의 顧藹吉이 편찬한 『隸辨』(전8권)의 「曹全(景完)碑」(東漢 靈帝 中平 2년, A.D. 185)에 ‘興’의 이체자로 나타나는 바, ‘興’의 이체자 ‘興’이나 ‘興’과 차이가 있다.¹⁹⁾ 따라서 부여의 전왕흥사지와 경주공고 내 유구에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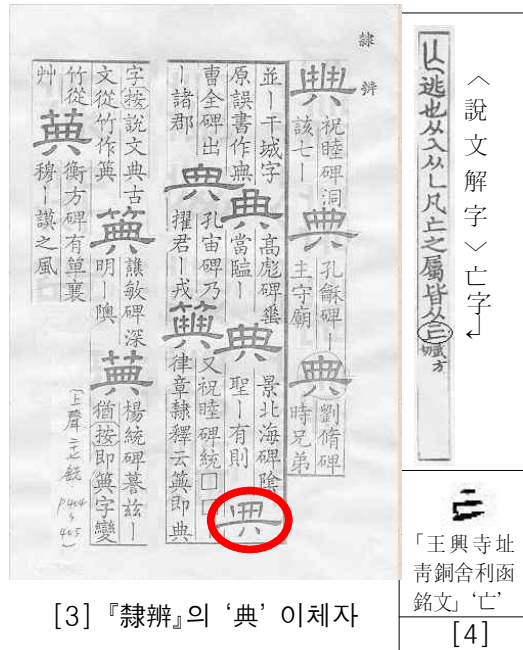
17) 국립경주박물관, 2011, 『경주공업고등학교내 유구수습조사』, 학술조사보고 23, pp. 70~71. 이병호, 2012, 앞의 논문, p. 44. 경주공고 내 유구를 조사한 보고자는 ‘王興’에 뒤이어 윗부분 획만이 남아 있는 글자를 ‘輪’이 아닌가 추측하였지만, 오히려 ‘敍’ 또는 ‘敍’의 윗부분 획에 가까운 바, ‘輪’의 윗부분 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불명으로 처리해 둔다.

18) 노도양, 1971, 「백제 왕흥사지고」, 『明大論文集』 4, p. 68. 洪思俊, 1974, 「虎岩寺와 王興寺址考」, 『百濟研究』 5, 충남대 백제연구소, pp. 3~4.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百濟王興寺』, p. 6.

19) 中華民國 教育部 國語推行委員會, 2004, 『異體字字典』, 興·興字.(<http://dict.variants.moe.edu.tw>)

각 출토된 명문와의 ‘王興’은 ‘王典’으로 석독된다.

부여 전왕흥사지에서는 2007년 「昌王銘金銅舍利函銘」이 발견되었다. 동 명문의 ‘丁酉年二月」十五日百濟」王昌爲亡王子立刹本舍」利二枚葬時」神化爲三」²⁰⁾에 따르면, 丁酉年 곧 위덕왕(창왕) 24년(577)에昌王이 亡²¹⁾王子를 위하여 건립하였음²²⁾을 알 수 있다. 사리함 명문에서는 사찰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왕에 이곳을 왕흥사로 보는 견해에 따라 때에 『삼국사기』 왕흥사 창건기사와는 24년여, 그리고 낙성기사와는 58년여 빠른 시기에 동 사



[3] 『隸辨』의 ‘典’ 이체자

王興寺址
青銅舍利函
銘文 ‘亡’
[4]

찰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창왕명금동사리함명」으로부터 위덕왕 24년(577, 진지왕 2)을 전후하여 왕흥사가 창건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삼국사기』의 기사를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³⁾ 그러나 전왕흥사지 출토 명문와의 ‘王興’이 ‘王典’으로 석독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조)

20) 문화재청, 「보도자료」, 2007. 10. 24.

21) ‘亡’에 대해서는 대체로 ‘亡’자로 석독하는데, 이도학은 이를 ‘三’자로 석독하여 풀이하였다.(李道學, 2008,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 分析을 통해 본 백제 위덕왕대의 정치와 불교」, 『한국사연구』 142, pp. 4~8) 필자는 大徐本 『說文解字』(中華民國 教育部 國語推行委員會 編輯, 『教育部 異體字字典』, 2001, ‘亡’字 ; <http://dict.variants.moe.edu.tw> 참조)에 근거하여 이를 ‘亡’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이도학이 ‘亡’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한 첫 획이 ‘丶’나 ‘3 획’이 아닌 ‘一’자와 ‘4 획’으로서, 「왕흥사지 청동사리함 명문」의 ‘亡’자와 거의 동일한 字形임을 확인할 수 있다.(위의 그림 [4] 참조)

22) 崔致遠이 光啓 丁未(887)에 찬술한 「大華嚴宗佛國寺阿彌陀佛像讚并序」에는 ‘檀越金叅相[大城] 建刹東岳之麓」이라 하여 불국사 창건을 ‘建刹」이라 한 바(朴南守, 1997, 「金大城의 佛國寺 造營과 그 經濟的 基盤」,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8, p. 62), 이도학의 주장대로 「왕흥사지 청동사리함 명문」의 ‘立刹」을 꼭 ‘塔의 建立」으로만 규정(이도학, 2008, 위의 글, p. 9)할 수는 없을 듯하다.

23) 梁起錫, 2009, 「百濟 威德王代 王興寺의 創建과 背景」, 『文化史學』 31, pp. 9~12.

경주 공고 내 유구에서도 부여 전왕흥사지와 동일한 명문이 나왔다면, ‘王典’이란 보통명사가 아닐까 여겨진다.²⁴⁾ 더욱이 전왕흥사지는 창왕이 亡王子를 위해 세운 사찰로서 원찰의 성격을 띠고, 그곳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명문와에서 ‘王典’이라는 명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주공고 내 유구에서 ‘王(?)典’이라는 명문과 함께 ‘人(穴 또는 大?)寺’라는 사찰명이 함께 출토된 것과 흡사하다.²⁵⁾ 전왕흥사지의 사찰은 위덕왕 24년(577)에 건립되었고, 경주공고 내 유구의 와편에서도 경주 대통사식 와편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6세기 무렵의 유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6세기에 백제와 신라 모두 사찰에 王典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祭奠을 베풀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흥륜사지와 관련하여 첨언할 것은, 경주공고 내 유구 출토 고려시대 명문와의 ‘[大]檀院’(No.133)이라는 명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曰大檀(?)完瓦棟梁道人性三□’으로 석독하였으나,²⁶⁾ ‘大檀(?)完’은 다음 탁본에서 보듯이 ‘[大]檀院’이 분명하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1, 慶州府 驛院조에 보이는 大檀院을 지칭하

- 24) 신라 하대에 ‘成德大王典’이나 獻康大王典을 지칭하는 ‘太傳典’ 등 왕실의 원당을 설치하여 속관과 승려를 배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박남수, 2013.3, 「신라 <法光寺石塔記>와 御龍省의 願堂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8, pp. 233~237), 경주공고 유구에서 출토된 ‘王典’ 또한 ‘成德大王典’이나 獻康大王典과 동일 유형의 명칭으로 풀이된다. 중고기 王典의 운영 양상을 살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찰을 매개로 한 것은 선덕여왕의 진영을 모셨던 靈廟寺를 ‘靈廟之寺’로 일컫는 데서 그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중고기 국왕 또는 왕족의 추복을 위하여 사찰에 王典을 설치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의 成典寺院에 대응하여 일종 ‘王典寺院’이라 일컬을 수 있을 듯하다. 사실 경주공고 내 유구에서 사찰명과 함께 王典이 등장한 데서, 원찰의 성격을 띤 중대의 성전사원은 중고기 王典을 확장한 데서 비롯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 25) 최근 2013년 7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고한 금관총 환두대도의 ‘糸斯智王’(국립중앙박물관, 2013. 7. 3, 「신라 금관총 출토 大刀에서 ‘糸斯智王’ 명문 확인」 보도자료, <http://www.museum.go.kr>)은 진흥왕 초기 나물왕계 내의 연대에 의해 진흥왕을 보위한 측근 세력 중의 하나인 異斯夫 곧 苔宗(『三國史記』 권 44, 列傳 4, 異斯夫)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사부는 자료에 따라 朴伊宗(『三國遺事』 권 1, 紀異 1, 智哲老王), 伊史夫智 伊干支(「단양 적성신라비」)로 전한다. 보도자료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영일 냉수리신라비」의 ‘七王等’으로부터 ‘6세기 전반까지 왕과 왕 아래에 있는 갈문왕이나 干支를 가진 고위 귀족도 왕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당시에 國王을 大王으로 일컬었던 데 대하여 干支群의 일급귀족들 또한 ‘王’이라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여 전왕흥사지의 ‘王典’이 왕자의 원찰로서 기능하였듯이, 마찬가지로 경주공고 유구의 ‘王典’ 또한 국왕 뿐만 아니라 왕자 또는 糸斯智王과 같은 일급 귀족의 추복을 위한 원찰로서 기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6) 국립경주박물관, 2011, 앞의 책, p. 71.

는 바, “[경주]부의 남쪽 6리에 있는데, 신라의 金生이 쓴 ‘大檀院’이라는 석 자의 큰 글씨가 있다”는 기사에 상응한다.

김시습은 「遊金鰲錄」이란 시에 앞서 “大檀院은 懷古해 보니 곧 南郊인데, 鮑石亭에서 2~3리 떨어져 있다”고 기술하였다.²⁷⁾ 김시습은 대노원을 南郊, 곧 조선시대 경주부의 남교로 인식하였



[5] 경주공고 내 유구 출토 고려시대 명문와 ‘[大]檀院’

다. 최소한 동 유구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명문와(No.132~ 148)로부터 摠郎이란 관직이 존재하던 고려 후기에는 현 경주공고 자리에 이미 大檀院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에까지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주공고 내 출토 유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경주]부 남쪽 6리’에 있다는 대노원이 분명하고, 대노원이 같은 책에서 기술한 흥륜사지의 위치 ‘[경주]부 남쪽 2리’와 서로 차이가 있으며, 고려 말엽 흥륜사가 화재로 소실되었던 만큼, 경주공고 유구는 흥륜사지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주공고 내 유구는 본래 ‘□大(?)寺’라는 사찰 내에 별도의 王典을 설치하였던 것을 김생이 활동한 중대에 이르러 당나라 사신들의 내왕이 빈번해지면서 驛院으로서의 大檀院으로 고쳐진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경주공고 내 출토 유구로부터 백제의 대통사에서 사용되던 제와술이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²⁸⁾ 王典 또한 백제의 영향하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신라의 흥륜사(대왕사)와 백제의 대통사가 정미년 곧 양무제의 捨身이 이루어진 때에 창건되었다는 것은, 양나라와 백제·신라 간의 불교 전래의 과정을 시사한다. 신라가 백제의 사신을 따라 양나라와 처음으로 교류하였던 만큼 양나라의 불교가 백제를 통하여 신라에 전래된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7) 『梅月堂詩集』 권 12, 詩, 遊金鰲錄.

28) 이병호, 앞의 논문, pp. 42~45.

한편 앞의 『삼국유사』 왕력과 흥법편에 보이는 법흥왕의 불교정책은 양무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함을 살필 수 있다. 법흥왕은 자신이 세운 흥륜사에 주석하면서 몸소 불교의 흥포를 맡았다.[主住其寺 躬任弘化](B①) 법흥왕이 세웠다는 사찰은 대왕사로 보아 좋을 듯한데, 그는 출가하여 여기에 주석하면서 법명을 法雲이라 하였다.(B③) 이러한 ‘법흥왕 말년 출가설’에 대해서는 중국 남조 불교의 영향을 받아 법흥왕이 捨身하였던 의식일 것으로 풀이하거나,²⁹⁾ 실제로 법흥왕의 흥륜사 주석은 출가자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서 세상을 통일하고 정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다가 만년에 출가하여 수도한다는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³⁰⁾

그런데 양무제는 모두 세 차례 곧 대통 원년(527) 3월과 중대통 원년(529) 9월, 그리고 태칭 원년(547) 3월에 걸쳐 捨身の 의례를 베풀었다. 양무제의 사신의례는 모두 同泰寺에서 이루어졌거니와, 대체로 무제는 捨身과 더불어 無遮大會를 베풀고, 무제의 贖錢으로 공경 이하가 일억만 전을 내면 무제는 환궁하여 大赦를 베풀고 개원하였다.³¹⁾ 신라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보이지 않으나, 법흥왕 23년(536)의 建元 개원과 진흥왕의 세 차례에 걸친 개원, 곧 開國(진흥왕 12년, 551), 大昌(진흥왕 29년, 568), 弘齋(진흥왕 33년, 572)로의 개원은 국왕의 捨身 의례 이후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³²⁾ 법흥왕과 진흥왕의 출가설은 이러한 데서 비롯한 것이리라 여겨진다.

그런데 A②에서는 律令을 시행하고, 十齋(行)일에 살생을 금하였으며, 度人으로 僧尼를 삼았다고 하였다. ‘十齋(行)일에 살생을 금한 것’은 이미 법흥왕 16년(529)에 내린 ‘下令禁殺生’에 상응한다. 이를 捨身の례에 따른 것으로서 이해하여, 이차돈의 순교 이전에 법흥왕의 捨身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기도 한다.³³⁾ 그러나 양 무제의 경우 최초의 사신을 행한 대통 원년(527) 3월 이전인 천감 16년(517) 4월에 처음으로 종묘의 희생[牲]을 없애고, 다시 같은 해 10월에는 종묘에서 포를 올리는 薦脩를 대신하여 처음으로 채소와 과일[蔬果]을 사용하였다.³⁴⁾ 아마도 신라 법흥왕의 ‘下令禁殺生’의 조치도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울주천전리서석」 追銘(539)에서 「迎日冷水里新羅碑」(지증왕 4, 503) · 「蔚珍鳳坪新羅碑」(법흥왕 11, 524)의 ‘煞牛’ 의식과 「울주천전리서석」 原銘(525)의 ‘食多煞

29) 신종원, 1987, 앞의 논문, pp. 17~23 ; 1992, 앞의 책, pp. 188-189.

30) 이자랑, 2013, 「신라 사원노비의 발생과 捨身」, 『동국사학』 54, pp. 114~116.

31) 『梁書』 권 3, 武帝 下, 대통 원년(527) 3월 · 중대통 원년(529) 9월 · 태칭 원년(547) 3월.

32) 辛鍾遠, 1987, 앞의 논문, p. 17.

33) 신종원, 1992, 「신라 불교 공인의 실상」, 앞의 책, p. 175.

34) 『梁書』 권 2, 본기 2 武帝 中, 天監 16년(517) 4월 · 10월.

이 사라지고 禮臣이 등장한 것은, 법흥왕 15년(528)에 佛敎를 공인하고 그 이듬해에 殺生을 금하는 敎이 내려진 때문으로 생각한다.³⁵⁾ 따라서 불교 공인 이전인 이차돈의 순교시에 법흥왕의 捨身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신라가 처음으로 양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공인하고, 모든 제사에서 종래의 犧牲을 없애고 蔬果로써 祭奠을 올리던 양나라의 제례를 따른 것이 법흥왕 16년(529)의 禁殺生 조치였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울주천전리서석」 追銘(539)에서 원명의 '食多斨' 의식을 대신하여 '禮臣'이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³⁶⁾

한편 度人으로 僧尼를 삼았다는 것은 진흥왕 5년(544) 3월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니가 되어 부처를 받드는 것을 허가한 그러한 조치로 판단된다.³⁷⁾ 이는 같은 해 2월 흥륜사를 낙성한 이후의 조치이겠지만, 「蔚州 川前里書石」 乙卯銘(법흥 22, 535)에서 比丘僧과 沙彌僧을 확인할 수 있어 이미 법흥왕 22년 무렵에 受戒의 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度人爲僧尼'이라는 구절의 '度人'이란 국가로부터 출가를 허용받은 사람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섭정직의 법흥왕비가 이를 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三國遺事』 권 3, 塔像 4,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조에서 진흥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일심으로 부처를 받들었다'는 것이나, '법흥왕의 뜻을 사모하여 널리 佛寺를 일으키고 度人으로 僧尼로 삼았다'는 것은, 법흥왕비 保刀夫人이 섭정하면서 법흥왕의 뜻을 이어 시행한 주요한 내용임이 틀림없다.³⁸⁾ 법흥왕비가 섭정하면서 사찰을 건립하고 출가를 관장하였던 것은, 법흥왕의 뜻을 받든 것으로서 당시 신라의 왕권이 敎·政을 통할하였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흥왕비의 교정일치적인 섭정은, 법흥왕이 대왕사에 주석하여 불교의 흥포를 맡고 살생을 금하여 祭禮를 개혁한 그것을 승계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흥왕의 출가설은 사신의례를 투영한 것이지만, 실제로 정교 양면을 국왕이 관장하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흥왕은 大王으로서 국정을 이끌 뿐만 아니라 聖王으로서 불교계를 관장하였다고 생각

35) 辛鍾遠은 냉수리비와 봉평비 건립 후 불교공인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진흥왕순수비에 이전의 서맹의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는데(辛鍾遠, 1990, 「6세기 초 新羅의 犧牲禮」, 『震壇學報』 70, p. 11), 진흥왕순수비보다 앞서 명기된 천전리 서석 추명의 禮臣은 종래의 犧牲禮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제례로 바뀌었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36) 박남수, 2008, 앞의 논문, pp. 34~35.

37)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5년(544) 3월.

38) 박남수, 2008, 앞의 논문, p. 30.

한다. 「蔚州 川前里書石」 乙卯銘(법흥 22, 535)에서 당시의 승려들이 법흥왕을 ‘聖法興大王’이라 칭한 것이나, 위의 『三國遺事』 原宗興法 厭觸滅身조에 인용된 鄉傳에서 ‘大聖法王’이라 일컬은 것은, 법흥왕이 政敎를 통할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양 무제의 경우 세 차례의 사신의례 외에도 重雲殿과 同泰寺에서 講說을 즐거워하였거니와, 동태사에서는 그 자신이 ‘法座’에 올라 大般若涅槃經, 摩訶般若波羅蜜經, 金字摩訶波若經을 설하였다.⁴⁰⁾ 특히 대동 11년 정월 경술에는 양무제의 동태사 행차를 “法駕出同泰寺大會 停寺省講金字三慧經”이라 하여,⁴¹⁾ 무제의 어가를 ‘法駕’로 표현하면서 양무제의 행차로 인하여 동태사의 寺省이 주관하는 金字三慧經의 강경을 정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무제가 동태사에서 행한 사신의례나 그의 동태사 행렬을 ‘法駕’로서 일컬은 것, 그리고 그가 몸소 ‘法座’에 올라 강경하는 등은, 동태사가 그의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불교정책의 중심지였음을 반영하며, 그 스스로가 법신으로서 사부대중을 아우르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흥왕·진흥왕대에 興輪寺를 중심으로 베풀었을 捨身 의례나 敎政의 통할은, 마치 양무제가 스스로 白衣僧正이라 일컬었듯이 敎政을 통할하는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⁴²⁾ 사실 양 무제는 동태사에서 그러하였듯이 僧政을 통할하는 帝王으로서 그 스스로 부처로서의 지위를 천명하였거니와, 이는 법흥왕이 ‘聖法興

39) 법흥왕을 ‘聖法興大王’이라 칭한 것에 대하여는, 법흥왕이 전륜성왕으로 자처했던 것으로 유추하기도 한다.(김영미, 2004, 「신라인의 이상적 인간상」, 『한국사상사학』 23, p. 234. 조경철, 2006,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43, pp. 26~27)

40) 『梁書』 권 3, 武帝 下, 중대동 3년 10·11월, 중대동 5년 2월·대정 3년 11월 을묘조 후기.

41) 『梁書』 권 3, 武帝 下, 대동 11년 정월 경술.

42) 신종원은 군왕으로서의 捨身은 ‘沙門不敬王者論’에서 나온 남조의 전통으로서, 王法에 대한 佛法의 우위를 의미한다고 풀이하였다. 또한 그는 신라 초기 불교에 있어서 남북조적 성격을 논의해서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하나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신종원, 앞의 논문, pp. 21~23) 이에 대해 기왕에는 신라 초기불교는 ‘王卽佛’ 사상을 표방한 것으로서 북방불교를 신라가 고구려를 통하여 받아들인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김철준, 1952,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하)」, 『역사학보』 2, p. 92), 북조의 불교를 王卽佛 사상, 남조의 불교를 王卽菩薩 사상으로 구분하여 본다.(남동신, 2005,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pp. 83~87) 그런데 신라 중고기 초 중국과의 교류는 법흥왕 8년(521) 백제를 통하여 양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이 처음이고, 신라의 북제와의 교류는 진흥왕 25년(564)의 일로서 고구려 양원왕 6년(550) 고구려가 북제에 사신을 보낸 지 14년 뒤의 일이다. 따라서 승정관련 관사들의 명칭이 남·북조의 것이 혼재한다 하더라도, 법흥왕·진흥왕대의 불교는 아무래도 백제를 경유한 남조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大王'으로서 일컬어지고, 신라 왕실이 석가모니의 가족에 비견되거나 선덕여왕이 찰리종 왕으로 불기를 받았다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특히 법흥왕이 주석하였다는 興輪寺의 사찰 이름 자체가 전륜성왕적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거니와,⁴³⁾ 중고기 신라 왕실이 전륜성왕을 표방하고 불교의 업설에 의거한 성왕 출현의 개념에 바탕하여 신성화된 국왕을 노사나불의 연화장세계에 배향할 수 있었던 것은,⁴⁴⁾ 聖法興大王의 教政 통할의 그것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Ⅲ. 寺主의 설치와 寺典

진흥왕은 즉위 12년 무렵 친정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 고구려 혜량법사를 사주로 임명하였다. 『삼국사기』 직관지 政官조에는 '國統을 일명 寺主라고 이른다' 하고,⁴⁵⁾ 같은 책 居柒夫傳에는 진흥왕 12년 신미(辛未, 551)에 혜량이 신라에 귀부하자 僧統으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百座講會와 八關의 法을 베풀었다고 하였다.⁴⁶⁾ 또 『三國遺事』 慈藏定律조에는 '辛未에 고구려 혜량법사를 國統으로 삼았는데 또한 寺主라고 이른다'⁴⁷⁾고 하였다. 이에 '寺主'란 칭호가 惠亮으로부터 비롯하였고, 그것을 國統 또는 僧統이라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모든 연구자들은 신라 승관제의 기원을 혜량으로부터 찾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阿道基羅·原宗興法 厭羈滅身조에는 법흥왕이 대왕사(흥륜사)에 주석하여 불교를 흥포한 것을 '主住其寺 躬任弘化'라고 일컬었다. 이는 양무제가 동태사에 행차하여 捨身 의례를 베풀고 그의 행렬을 '法駕'로서 일컬은 것, 그리고 그가 몸소 '法座'에 올라 강경하는 등에 상응하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법흥왕의 '主住其寺'는 진평왕대에 大乘寺를 짓고 비구니를 청하여 절을 맡게 한 '主寺'라는⁴⁸⁾ 의미와 서로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主寺'가 '사찰을 主掌한다'라는 의미라면,⁴⁹⁾ 혜량이 임명된 '寺主'는 '사찰을 관장하는 책임자'라는

43) 김재경, 2002, 「文獻에 보이는 興輪寺」, 『신라문화』 20, p. 157.

44) 박남수, 2012, 「신라 진전사원의 조영과 그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40, pp. 61~69.

45) 『三國史記』 권 40, 職官 下, 政官.

46) 『三國史記』 권 44, 列傳 4, 居柒夫.

47) 『三國遺事』 권 4, 義解 5, 慈藏定律.

48) 『三國遺事』 권 3, 塔像 4, 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49) 조법중은 '主寺'를 사찰 운영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主持의 의미로 풀이하였다.(조법

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법흥왕이 ‘住住其寺’ 하였다는 것은, 그가 대왕사(흥륜사)의 寺主를 겸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흥왕의 정교일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의 일이긴 하나 寺主는 國統과도 구별되는 특정 사찰의 수반을 지칭하였다. 『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函記』(872)에는 ‘寺主 惠興으로 聞僧으로 삼았다(寺主惠興爲聞僧)’하고 道監典에 ‘前國統 僧惠興’이라 하여, 惠興이 황룡사구층목탑을 중수한 경문왕 11년(871) 당시에 황룡사의 寺主였으나 현 국통이 아닌 ‘前國統’으로 등장한다. 이는 9세기 후반 寺主와 國統이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寺主는 『皇福寺 金銅舍利函銘』(성덕왕 5, 706)의 ‘寺主 沙門善倫’, 『寧越興寧寺 澄曉大師塔碑』(944)의 ‘能善寺主 乘全寺主 聰月寺主’ 등에서 살필 수 있거니와, 대체로 住持의 의미로 풀이된다.⁵⁰⁾

『일본서기』 孝德天皇 大化 元年(645) 8월 癸卯조에는 백제 明王(聖王) 30년(552)에 백제가 일본에 佛法을 전한 사실을 밝히고, 10師을 임명하면서 惠妙法師를 百濟寺의 寺主로 삼은 사실을 전한다. 일본의 寺主는 백제의 그것을 수용한 것이라 보아 좋을 듯한데, 『延嘉七年銘 金銅光背銘』(539)에서는 “高麗國樂良 東寺主敬…”이라 하여 고구려에서도 寺主제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헤량이 신라에 망명할 당시에 고구려와 백제는 이미 ‘寺主’제를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孝德天皇 大化 元年(645) 8월의 조칙에서, 寺主의 직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C. (8월 丙申 초하루) 癸卯에 사신을 大寺에 보내 僧尼들을 불러 모으고 조칙을 내려 “磯城嶋宮御宇天皇(欽明天皇) 13년(552, 성왕 30)에 백제의 明王(聖王)이 우리 倭에 佛法을 전했다. … 小墾田宮御宇天皇(推古天皇)의 시대에 馬子宿禰가 천황을 위해 丈六繡像·丈六銅像을 만들고 불교를 드날렸으며 僧尼를 공경하였다. 나는 다시 바른 가르침을 숭상하고 큰 도리를 널리 열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沙門 狛大法師 福亮·惠雲·常安·靈雲·惠至寺主·僧旻·道登·惠隣·惠妙를 10師로 삼는다. 특별히 惠妙法師를 백제사의 寺主로 삼는다. 이 10사들은 마땅히 못 승려들을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석가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을 법답게 해야 한다. 무릇 천황으로부터 伴造에 이르기까지 세워야 할 절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내가 모두 도와 짓겠다. 이제 寺司들과 寺主를 임명하니, 여러 절을 순행하여 僧尼·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모두 아뢰라”고 하였다. 곧

중, 1987, 「新羅寺院奴婢의 起源問題에 關한 一考察」, 『史叢』 32, p. 9)

50) 邊善雄, 1973, 「皇龍寺 9層塔誌의 研究」, 『國會圖書館報』 10-10, pp. 56~57.

來目臣[闕名]・三輪色夫君·額田部連甥을 法頭로 삼았다. (『일본서기』 권 25, 天
萬豐日天皇 孝德天皇 大化 元年(645) 8월 癸卯)

위의 기사는 孝德天皇 대화 원년(645)의 것으로서, 이 때는 선덕여왕 14년으로 자장이 대국통에 임명된 때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동시기라 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서 孝德天皇은 불교를 흥포하고자 10師를 삼고, 惠妙를 백제사의 사주로 삼음으로써, 각 사찰의 주지와 승려들이 석가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寺主와 寺司들로 하여금 外寺의 여러 절을 순행하여 僧尼·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삼국유사』 자장정률 조에 보이는 ‘자장이 대국통이 되어 승려들에게 持戒와 犯戒를 알게 하고, 巡使를 보내 外寺를 돌며 검사하고 승려들의 잘못을 살피며 경전과 불상을 엄중하게 정비하여 규정형식을 만들었다’⁵¹⁾는 것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자장의 경우 일본의 그것과 달리 외사의 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진흥왕 12년 혜량이 사주가 되어 행한 직임은 내외 사찰에서의 법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곧 『삼국유사』에서 혜량은 백고좌회와 팔관회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戰死한 士卒를 위하여 진흥왕 33년(572) 겨울 10월 20일부터 7일간 外寺에서 베풀었다는 八關筵會는,⁵²⁾ 『삼국유사』에서 혜량이 베풀었다는 팔관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혜량은 大王興輪寺의 寺主로서 外寺의 팔관회까지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속고승전』 자장전에서 자장은 대국통에 임명되기 이전까지 황룡사에서 강설과 授戒만을 관장하였다. 이로써 볼 때에 혜량과 대국통 임명 이전의 자장은 법회의 개최와 授戒에 한정된 직임만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大邱戊戌塙作碑」(578, 진지왕 3)에서는 두 명의 都唯那 寶藏·慧藏 阿尺干이 제방을 만드는 데 일종의 공사감독관으로서 참여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⁵³⁾ 필자는 두 명의 승려가 塙의 축조 공사감독으로 참여한 것은 불교의 자비·보시·복전·일여평등 등의 근본사상에 바탕을 둔 불교 사회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 바 있다.⁵⁴⁾ 사실 이 때 축조한 另冬里村 高□塙가 대구 지역의 사찰

51) 『三國遺事』 권 4, 義解 5, 慈藏定律.

52)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眞興王 33년 冬 10월 20일.

53) 李弘植, 1959, 「新羅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p. 673. 또한 선생은 이와 같은 성격의 이름으로 上院寺鐘銘(725)의 都唯乃나, 蓮池寺鐘銘(833)의 都乃, 竅興寺鐘銘(856)의 時都乃 등을 들었다.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들이 都唯那라는 승직을 가졌고, 阿尺干이라는 경위를 관칭하였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승려가 京位를 소지하였다는 것은, 진지왕대에 승관에게도 경위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승관직에 대한 경위의 수여는, 진지왕 3년 무렵에 승관이 일반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국왕 휘하의 관등체계 안에 편제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대왕흥륜사의 사주가 外寺의 법회를 관장하고, 일본 사주의 직임 가운데 ‘寺司를 거느리고 여러 절을 순행하여 僧尼·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한 것을 생각하면, 「대구무술오작비」의 都唯那는 아마도 外寺의 토지와 관련된 塲의 축조에 파견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⁵⁵⁾ 그들이 어디에 속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관등을 지닌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국왕의 관료조직에 속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진흥왕은 동왕 11년(550)에 안장을 大書省에 임명하고 그 이듬해에는 惠亮法師를 寺主로 삼았으며, 다시 寶良法師를 大都唯那에 임명하였다. 아마도 「대구무술오작비」의 도유나는 진흥왕대에 설치한 대도유나의 휘하에 있었을 것이다. 이는 신라 하대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에서 정법대통 석 玄亮이 지증대사의 莊田 기진에 따라 별도의 땅을 가려 正場을 구획하고, 주·군통이 해당 지역 책임자로서 이들 토지를 구획하는 실무에 당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진흥왕 11년(550) 대서성에 임명된 안장이 본래 흥륜사의 전신인 대왕사 소속의 승려였던 만큼,⁵⁶⁾ 진흥왕대에 설치한 ‘사주·대도유나·대서성’의 체계는 흥륜사에 두어졌으며, 다시 대도유나가 그 휘하에 도유나를 두어 外寺의 토지와 관련된 塲의 축조 등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진흥왕은 즉위 12년 친정에 임하여 사신의례를 베풀고, 이와 더불어 大書省 및 대도유나와 함께 寺主를 임명함으로써 승관체

54) 박남수, 1995, 「新羅 僧匠의 활동과 그 사상적 기반」, 『한국고대사연구』 10 ; 앞의 책, pp. 246~250.

55) 후보돈은, 왕경 소재의 대사찰이 녹읍주로서 소유 녹읍의 생산력을 높일 목적으로 당사찰 소속의 도유나를 파견하여 塲의 축조를 주도했으리라고 보았다.(후보돈, 1988, 「신라 중고기의 군사와 촌사」, 『한국고대사연구』 1, p. 58) 이에 대해 노중국은 향도의 공동 노동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었는데(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p. 299), 이수훈은 무술오작비의 도유나가 경위를 소지한 것은, 승관직인 도유나가 세속과 밀접한 관련 뿐만 아니라, 제방, 사찰 건립 등과 같은 세속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일정한 기술감독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이수훈, 앞의 논문, pp. 26~27) 한편 강봉룡은 도유나의 종교적 기능이 지방에 작용했을 것으로(강봉룡, 1997, 「신라의 승관제와 지방지배」, 『전남사학』 11, p. 59) 풀이하었다.

56) 이문기, 앞의 책, pp. 154·168.

계를 정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⁷⁾

그런데 흥륜사의 전신이 대왕사였고, ‘住其寺’한 법흥왕은 대왕사를 관장하였다. 이에 법흥왕의 대왕사에서 지위가 후일 혜량의 흥륜사 사주의 지위로 승계되지 않았을까 한다. 마치 양무제의 ‘法駕’가 동태사에 이르자 ‘寺省’들이 주관하는 講經을 그쳤다고 하는 데서, 동태사에서 양무제의 지위가 신라 대왕사(흥륜사)에서 법흥왕이 ‘住’한 것과 흡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라에도 양나라와 마찬가지로의 ‘寺省’과 같은 기구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법흥왕이 정교를 통할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국왕을 보좌하는 정도의 체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법흥왕이 흥거하고 나서, 법흥왕비는 영흥사에서 주석하면서 정교를 통할하였다. 법흥왕비가 영흥사에 주석하였다는 데서 그녀는 영흥사의 사주인 셈이며,⁵⁸⁾ 영흥사가 비구니 사찰이라는 점에서 그에 걸맞는 지위로서 도유나랑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법흥왕비 이후 진흥왕비 또한 영흥사에 주석하다 죽었다는 것으로 보아, 법흥왕비와 진흥왕비가 영흥사의 사주로서 도유나랑직을 승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볼 때에 도유나랑의 예하에 대도유나를 거느리는 승관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진흥왕 12년 혜량을 사주에 보임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서성과 대도유나를 임명하는 것은, 기존의 법흥왕대의 정교일치적인 체제로부터 승려에게 일정한 직임을 위임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을 시사한다. 국왕은 몸소 捨身의 의례를 실천하면서 대서성을 통하여 일반인의 출가를 관장하고 불사의 재정적 지원자로서 역할하였을 것이며, 사주는 내외의 국가적 법회를 주관하고 수계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寺主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중앙관사 大道署의 별칭 寺典이다. 寺典은 내성산하 관사로서도 등장한다. 일찍이 사전의 명칭이 北濟의 典寺曹와 유사하고, 그 후신인 대도서가 예부에 속한 것이 복제의 전사조가 흥로시에 속한 것과 유사하

57) 이수훈은 6세기 중엽 왕정에 있는 특정 사원의 일부 승려에게 수여한 승관직은 이들 특정 사원의 승관직일 뿐만 아니라 신라 전체의 승관직이기도 한 바, 실질적으로 승관직 자체가 승정기구적 성격과 실무 관원적 역할을 미분화된 상태로 동시에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이수훈, 앞의 논문, p. 24) 채상식도 이와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신라 중고기에 특정 사원을 중심으로 한 승관직이 승정기구의 기능을 대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채상식, 1995, 「자장의 교단 정비와 승관제」, 『불교문화연구』 4, p. 73)

58) 都唯那娘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 職官志 政官條에 진흥왕 12년(551) 阿尼로써 都唯那娘을 삼았다는 기사가 보일 뿐인데, 법흥왕비가 영흥사에 주석하고 ‘創寺立像之主’로 지칭되었다는 것은, 일종 법흥왕비가 영흥사의 ‘寺主’였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다는 점에서, 북제의 전사조, 수·당의 崇玄署와 비슷하게 俗權에 의한 국가 불교 통제 기구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⁵⁹⁾ 또한 사전이 내성 소속 기구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하여 왕실불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⁶⁰⁾ 사실 신라의 사전이나 대도서, 내도감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으나, 진흥왕 12년 혜량을 사주로 임명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집사성의 전신인 租主와 내성관사인 租典의 관계는 집사부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지만, 寺主-寺典의 관계와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執事省의 본래 명칭이 稟主이고, 이를 租主라고도 일컫는다고 하였다. 租主는 執事省의 본래 이름인 稟主의 별칭이다. 이에 稟主의 ‘稟’이 창름의 뜻이 있고, 그 별칭인 ‘租主’는 ‘租主’의 간오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품주의 처음 직책이 재정부분을 주로 맡다가 뒤에 다른 정무를 겸함으로써 점차 복잡성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한다.⁶¹⁾ 나아가 품주는 왕정의 機密事務를 관장하는 최고 관부인 집사부로 발전하였는데 그 소속 관직 典大 등이 설치된 진흥왕 26년(565)에 처음 두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⁶²⁾

그런데 ‘租主’의 ‘主’는 어떤 관사를 지칭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직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 상고 말 중고기 초의 금석문에서는 그 직임을 ‘○人’으로 표기하다가 ‘○臣’으로 바뀌면서 관사를 지칭하는 ‘○○○典’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중성리신라비」의 爭人·使人이나 「냉수리신라비」의 典事人, 「울진봉평신라비」의 節書人·新人, 「울주 천전리 서석명」(원명)의 作功人·作食人·作書人 등이 「울주 천전리 서석명」(추명)에서 作功臣·禮臣·作食人으로 나타나다가, 「신라진흥왕순수비」에 이르러 執駕人, 裏內從人, 藥師, 奈夫通典, 及伐斬典 등으로 바뀌었다. 곧 직임에 따른 구분이 ‘○○人’으로부터 ‘○師’ ‘○○○典’의 형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품주는 다시 진평왕 6년(584) 調府를 설치함으로써 貢賦의 직능이 분리되고, 진평왕 46년(624) 賞賜署를 설치하면서 그에 소속되었다가, 진덕왕 5년(651) 집사부로 고치면서 창부와 직무를 분장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품주가 본래 왕

59) 井上光貞, 1965, 「日本における佛教統制機關の確立過程」, 『日本古代國家の研究』, p. 330.

60) 남동신, 2000, 앞의 논문, p. 154.

61) 이병도, 1954, 「古代南堂考」,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pp. 636~637.

62) 이기백, 1964, 「稟主考」, 『이상백박사회갑기념논총』; 1974, 『신라정치사학회사연구』, 일조각, 138 · pp. 141~144.

권의 지휘하에 재물의 분배에 관한 기능을 맡는 기구로 출발하여, 집사부로 바뀌어서 王政의 기밀을 관장하는 것만을 그 공적인 임무로 하는 관부가 된 것으로 이해한다.⁶³⁾ 이로써 품주가 본래 국왕의 기밀 사무뿐만이 아니라 재정 출납의 일과 賞賜·倉庫의 직무까지 두루 관장하는 가신적 기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주요한 중앙 관부로 성장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租主(稟主)와 흡사한 租典이란 관부가 내성에도 존재하였다. 진평왕 6년(584) 調府를 설치하여 조주의 직능 가운데 하나인 貢賦의 직능이 조부로 이관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앙 관사와 내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진평왕 44년(622) 이찬 용수를 內省私臣에 임명하여 진평왕 7년(585)에 설치한 대궁·양궁·사랑궁사신을 통할하면서 중앙관사와 내성관사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관사로서의 租主(稟主)와 내성 관사로서의 租典은, 내성사신을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본래 하나의 관사였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租典이 내성산하의 관부로 설치된 것은 내성사신을 설치한 진평왕 44년(622) 무렵이 아닐까 한다. 그 이전에는 재정의 수납과 창고, 기밀의 업무를 중앙관사나 내성의 구분이 없이 租主(稟主) 또는 租典이 관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沾解尼師今 5년(251) 漢祇部の 夫道가 書算으로 저명하여 物藏庫의 사무를 맡겼다고 한다.⁶⁴⁾ 여기에서 ‘書算’으로 표현된 재정의 수납과 창고, 기밀의 업무를 物藏庫가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물창고는 후일 내성 산하의 物藏典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직임은 진덕왕 5년(651)에 설치한 倉部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창부의 직능은 본래 품주 곧 조주에 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내성사신 설치 이후 내성의 租典-物藏典과 중앙관사로서 설치된 租主(집사부)-倉部の 체계는 서로 일맥 상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중앙관사 租主(집사부)-倉部の 체계는 직능상 내성관사 租典-物藏典과 상응하며, 租典의 직무는 租主의 직임으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보아 좋을 듯하다. 이처럼 집사부의 본래 명칭 稟主 또는 租主가 내성 산하의 租典의 명칭과 흡사한 것은, 내성사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직임으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관사가 중앙관사와 내성 관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⁶⁵⁾

63) 이기백, 1964, 「신라집사부의 성립」, 『진단학보』 25·26·27합 ; 위의 책, p. 151.

64) 『三國史記』 권 2, 新羅本紀 2, 沾解尼師今 5년 春 1월.

65) 木村誠은 기왕에 관부로 보아왔던 稟主를 관직으로 이해함으로써 신라 중앙관사 성립 과정을 ‘관직→관사’로 이행한 것으로 보았거니와(木村誠, 1976,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 『歴史學研究』 428, p. 23), 필자 또한 稟主를 寺主와 동일한 직임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조직화된 것이 관사로 성립된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진흥왕 12년을 전후하여 승관을 배치하면서 대왕사(흥륜사) 寺主의 직임이 관제화됨으로써 寺典을 베풀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의 사전에는 관등을 가진 승관들과 국왕의 관리가 소속되어 내외의 법회와 수계에 관한 사주의 직임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후일 정법전의 직임이라 할 수 있는 外寺의 僧尼·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일까지 관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 직관지 정관조에서는 원성왕 원년 정법전에 승관을 설치하기 이전에 ‘大舍 1명, 史 2명으로 관아를 설치’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정법전의 전신 조직이 대사·사의 체계로 존재한 사실을 시사하거니와, 진흥왕대 사전의 직임이 내성 사신의 설치로 대도서와 내성 산하 사전으로 분화되고, 다시 정법전으로 나뉘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래 사전에는 사주 휘하의 대도유나·대서성 뿐만 아니라 국왕 직속의 속관들도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사전이라는 별개의 관사를 베풀면서 사주 이하 승관체계와 속관으로 구성된 사전으로 분화되었고, 그러한 사정이 『삼국사기』 직관지 중앙관제 대도서조에서 흑설로서 대정의 휘하에 ‘大舍 2명이 있었다’고 일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대도서가 사전으로부터 비롯하였다면, 진평왕 46년 대정을 설치하기 이전의 사전에는 대사가 그 직임을 수행하였던 것인데, 중앙관사로서 대도서를 출범시키면서 대정·대사의 체계를 이루다가 대정·주서·사의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도서의 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속고승전』에서 자장이 대국통에 임명되기 전에 사주(승통)가 내외의 법회와 수계하는 직임을 맡고 宰伯과 협의하여 승려의 행실을 평정하였다. 따라서 宰伯이란 대도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출가에 대한 사항은 국왕의 주요한 승정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경덕왕대에 主簿로 개칭된 主書가 대도서 대정 휘하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승려의 출가와 승적까지도 대도서의 직무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한편으로 사찰 창건의 재정적 지원이 국왕의 주요한 불교 시책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하대에 국왕의 근시적 성격을 띠었던 정법전의 주요 직임이 토지의 기진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맡는 관리가 본래 속관이었던 점에서, 내성의 사전에서는 왕실 사찰의 관리와 토지 기진 등의 일까지도 관장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⁶⁶⁾

66) 박남수, 2013.8, 「신라 大道署의 정비과정과 僧政體系의 변화」, 『한국사상사학보』 44 참조.

IV. 맺 음 말

지금까지 신라 승정에 관한 연구는, 승정기구를 승관제와 동일시함으로써 승관제 자체를 불교통제기구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삼국사기』 직관지에는 중앙관제와 마찬가지로 승정기구와 승관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승정기구의 성립 과정을 법흥왕·진흥왕대의 불교정책 및 왕권과 관련하여 살피고, 초기 승정과 관련된 寺主와 寺典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신라는 법흥왕 18년(528) 불교를 공인한 이듬해에 양나라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흥륜사는, 양무제가 처음으로 捨身을 행한 정미년(527, 법흥왕 14년, 성왕 5년)에 착공하여 법흥왕 21년(534)에 大王寺로서 창건되었는데, 진흥왕 5년(544)에 이를 중창함으로써 大王興輪寺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흥륜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흥륜사지설과 경주공고 유구설이 있다. 후자의 경우 경주공고 출토 와편의 명문 ‘王興’을 ‘王興’으로 보고, 부여의 傳王興寺址 출토 銘文瓦 ‘王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王興’으로 석독함으로써, ‘大王興輪寺’의 ‘王興’에 상응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그러나 ‘興’은 『隸辨』의 「曹全(景完)碑」(東漢 靈帝 中平 2년, A.D. 185)에 ‘典’의 이체자로 등장하고, 부여의 전왕흥사지에서도 「昌王銘金銅舍利函銘」이 발견됨으로써 『삼국사기』 왕흥사 창건기사와 어긋나는 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경주공고 유구에서 [大] 檀院(No.133)이라는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 명문와가 다량으로 출토 된 바, 경주공고 유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일컬은 대노원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주공고 내 유구는 본래 ‘□大(?)寺’라는 사찰 내에 별도의 王典을 설치하였던 것을 중대에 이르러 당나라 사신들의 내왕이 빈번해지면서 驛院으로서의 大檀院으로 고쳐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경주공고 내 출토 유구로부터 백제를 통하여 사찰의 조영 방식이나 와당이 전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거니와, 신라의 흥륜사(대왕사)와 백제의 대통사가 정미년 곧 양무제의 捨身이 이루어진 때에 창건되었다는 것은, 양나라의 불교가 백제를 통하여 신라에 전래된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었다.

둘째, 법흥왕과 법흥왕비의 불교정책이 양무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점에 주목하여, 법흥왕과 진흥왕의 출가설은 捨身 의례로 인한 것임을 추정하였다. 특히 법흥왕비가 攝政으로서 영흥사에 주석하면서 사찰을 창건하고 度人으로서 僧尼를 삼

은 것은, 법흥왕이 대왕사에 주석하여 불교의 흥포를 맡았다는 그것을 승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로써 법흥왕·진흥왕대에 興輪寺를 중심으로 베풀었을 捨身의례나 敎政의 통할은, 양무제가 동태사에서 그러하였던 불교정책을 신라사회에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진흥왕이 그의 아들을 동륜, 사륜이라 일컬으면서 사방경략의 전문성왕으로서 위치지은 것도 聖法興大王的 敎政 통할의 그것에 바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법흥왕이 대왕사(흥륜사)에 ‘主住其寺’ 하였다는 것은, 그가 흥륜사의 寺主를 겸하였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흥왕의 정교일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대의 寺主는 國統과도 구별되는 특정 사찰의 수반을 지칭하였는데, 『일본서기』 孝德天皇 大化 元年(645) 8월 癸卯조의 조칙에 보이는 사주의 직임과 『속고승전』 자장전, 그리고 「大邱戊戌塲作碑」(578, 진지왕 3)로부터 신라 초기 사주의 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곧 초기의 사주는 법회의 개최와 授戒 등에 한정된 직임을 맡았고, 그에 속한 승관들은 철저히 국가의 관등체계에 예속되어 外寺의 토지와 관련된 塲의 축조 등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짐작하였다. 특히 진흥왕 12년 혜량을 사주에 보임하고, 이를 전후하여 대서성과 대도유나를 임명한 것은, 기존의 법흥왕대의 정교일치적인 체제로부터 승려에게 일정한 직임을 위임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국왕은 몸소 捨身의 의례를 실천하면서 일반인의 출가를 관장하고, 불사에 재정적 지원자로서 역할하였을 것이며, 사주는 내외의 국가적 법회를 주관하고 수계하는 일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넷째, 중앙관사 大道署의 별칭 寺典은 내성 산하 관사로서도 등장하는 바, 그 변화과정을 집사성의 전신인 租主와 내성관사인 租典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하였다. 신라 중앙관사의 경우 직임에 따른 구분이 ‘○○人’으로부터 ‘○師’ ‘○○○典’의 형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앙관사 租主(執事部)-倉部の 체계는 직능상 내성관사 租典-物藏典과 상응하며, 租典의 직무는 租主의 직임으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화과정은 내성사신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하나의 관사가 중앙관사와 내성 관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진흥왕 12년을 전후하여 승관을 배치하면서 대왕사(흥륜사) 寺主의 직임이 관제화 됨으로써 寺典을 베풀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이때의 사전에는 관등을 가진 승관들과 국왕의 관리가 소속되어 내외의 법회와 수계에 관한 사주의 직임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후일 정법전의 직임이라 할 수 있는 外寺의 僧尼·奴婢·토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일까지 관장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또한 대도서는 사전으로부터 비롯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진평왕 46년 대정을 설치하기 이전의 사전에는 대사가 그 직임을 수행하다가, 중앙관사로서 대도서를 출범시키면서 대정-대사의 체계를 이루고, 다시 대정-주서-사의 체계를 갖추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대도서는, 『속고승전』 자장전으로부터 자장의 대국통 임명 이전에는 승려의 행실을 평정하였던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경덕왕대에 主簿로 개칭된 主書가 대도서 대정 휘하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승려의 출가와 승적까지도 대도서가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한편으로 사찰 창건의 재정적 지원이 국왕의 주요한 불교 시책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하대에 국왕의 근시적 성격을 띠었던 정법전의 주요 직임이 토지의 기진 등을 관장하는 것이었고 이를 맡는 관리가 본래 속관이었던 점에서, 내성의 사전이 왕실 사찰의 관리와 토지 기진 등의 일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요컨대 법흥왕·법흥왕비는 사찰 창건과 승려의 출가, 살생 금지령의 발령 등을 통할하여 정교일치적인 승정을 베풀었는데, 진흥왕 12년을 전후하여 사주 이하 승관을 설치함으로써 법회와 수계에 관한 사항을 승단이 전담하였다가, 진평왕대에 대도서를 설치하면서 법회와 수계, 승려의 출가 및 승적의 관리, 왕실 사찰의 관리와 창건 등의 직임별로 각각 흥륜사의 사주, 중앙관사인 대도서, 내성의 사전으로 분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국왕의 고유 권한인 승려의 출가 및 승적의 관리, 사찰의 창건과 왕실 사찰의 관리 등을 국왕 휘하의 관제상에 두면서, 법회의 개최와 승려들의 계율 엄수, 수계 등의 사항을 승단에 위임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논문투고일 : 7월 19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6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7일]

[참고문헌]

1. 기본사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梁書』 『新增東國輿地勝覽』 『梅月堂詩集』 『說文解字注』

2. 단행본 및 저서

- 국립경주박물관, 2011, 『경주공업고등학교내 유구수습조사』, 학술조사보고 23
- 국립중앙박물관, 2013. 7. 3, 「신라 금관총 출토 大刀에서 ‘丕斯智王’ 명문 확인」
 보도자료
-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 文化財研究所, 1977, 『文化遺蹟總覽』 中
- 문화재청, 2007. 10. 24, 「보도자료」
- 박남수, 1996, 『신라수공업사』, 신서원
-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이기백, 1974,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이기백, 1986,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 中華民國 教育部 國語推行委員會, 2004, 『異體字字典』(<http://dict.variants.moe.edu.tw>)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II
- 韓國佛敎研究院, 1974, 『新羅의 廢寺』 I, 一志社

3. 논문류

- 강봉룡, 1997, 「신라의 승관제와 지방지배」, 『전남사학』 11
- 김복순, 2002, 「興輪寺와 七處伽藍」, 『신라문화』 20
- 김영미, 2004, 「신라인의 이상적 인간상」, 『한국사상사학』 23
- 김재경, 2002, 「文獻에 보이는 興輪寺」, 『신라문화』 20

- 김철준, 1952,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하)」, 『역사학보』 2
- 남동신, 2000, 「신라의 승정기구와 승정제도」, 『한국고대사논총』 9
- 남동신, 2005, 「나말려초 국왕과 불교의 관계」, 『역사와 현실』 56
- 노도양, 1971, 「백제 왕흥사지고」, 『明大論文集』 4
- 木村誠, 1976, 「6世紀新羅における骨品制の成立」, 『歴史學研究』 428
- 朴南守, 1997, 「金大城의 佛國寺 造營과 그 經濟的 基盤」,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논문집』 18
- 박남수, 2008, 「蔚州 川前里書石銘에 나타난 眞興王의 王位繼承과 立宗葛文王」, 『한국사연구』 141
- 박남수, 2012, 「신라 진전사원의 조영과 그 사상적 배경」, 『신라문화』 40
- 박남수, 2013, 「신라 法光寺石塔記와 御龍省의 願堂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58
- 박남수, 2013, 「신라 大道署의 정비과정과 僧政體系的 변화」, 『한국사상사학보』 44
- 박흥국, 2002, 「瓦塚資料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사지의 위치비정」, 『신라문화』 20
- 邊善雄, 1973, 「皇龍寺 9層塔誌의 研究」, 『國會圖書館報』 10-10
- 辛鍾遠, 1987, 「道人 使用例를 통해 본 南朝佛敎와 韓日關係」, 『韓國史研究』 59
- 辛鍾遠, 1990, 「6세기 초 新羅의 犧牲禮」, 『震壇學報』 70
- 梁起錫, 2009, 「百濟 威德王代 王興寺의 創建과 背景」, 『文化史學』 31
- 魏英, 2001, 「신라 중고기 국가불교의 전개」, 『문화사학』 15
- 이근직, 2002, 「신라 흥륜사 위치 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 이병호, 2013.3,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 『한국고대사연구』 69
- 이수훈, 1990, 「新羅 僧官制의 성립과 기능」, 『釜山史學』 14
- 이자량, 2013.6, 「신라 사원노비의 발생과 捨身」, 『동국사학』 54
- 李弘植, 1959, 「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 井上光貞, 1965, 「日本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の確立過程」, 『日本古代國家の研究』
- 조경철, 2006, 「동아시아 불교식 왕호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43
- 조법중, 1987, 「新羅寺院奴婢의 起源問題에 關한 一考察」, 『史叢』 32
- 주보돈, 1988, 「신라 중고기의 군사와 촌사」, 『한국고대사연구』 1
- 中井眞孝, 1971, 「新羅における佛敎統制機關について」, 『朝鮮學報』 59
- 채상식, 1993, 「신라 승관제 이해를 위한 시론」, 『한국문화연구』 6, 부산대
- 채상식, 1995, 「자장의 교단 정비와 승관제」, 『불교문화연구』 4
- 洪思俊, 1974, 「虎岩寺와 王興寺址考」, 『百濟研究』 5, 충남대 백제연구소